

‘떠 들어오다 멈춘 섬’ 전설의 ‘이동-멈춤’에 나타난 전승의 정서적 변용과 변이*

김정은**

〈차례〉

1. 서론
2. ‘떠 들어오다 멈춘 섬’ 전설의 전승 양상
3. ‘떠 들어오는 섬’의 이동에 대한 정서적 변용: 활력의 경이로움과 불편함
4. ‘섬을 멈춘 행위’의 두 간극: 누설과 호응 사이의 정서적 변용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지형 형성 유래담 중 ‘떠 들어오다 멈춘 섬’ 전설의 ‘이동-멈춤’의 순차구조에 나타난 정서적 변이를 신유물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전승되는 열두 편의 전설에는 상반된 정서가 투영되는 특징이 있는데, 섬의 이동을 자연의 생명력과 활력으로 바라볼 때는 경이로움의 정서를 표출하기도 하지만, 섬의 움직임을 멈추게 한 여성의 행동이나 멈춘 섬의 위치에 대해서는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신격이 부정적으로 변형된 것으로 해석해 왔으나, 본 연구는 더 나아가 인간이 자연의 활력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변용과 서사적 다층성에 주목하였다.

신유물론에 근거하여, 인간과 자연(물질)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의 활력을 공유할 때에 생기는 정동을 본 논의에서는 정서적 변용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섬의 이동이 인간의 의도에 의해 통제될 때에는 ‘금기-누설’의 서사문법이 작용하여 부정적

* 이 글은 한국고전연구학회 129차 동계학술대회 ‘물질로서의 인간과 감정, 그리고 고전문학’의 기획주제로 (2025년 2월 18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가 깊어지도록 지정토론을 해주신 인천대 김정경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건국대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정서가 나타나고, 반대로 자연에 호응하고 존중하며 상호작용할 때 긍정적 정서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후지를 ‘호응-응답’의 말하기로 명명하여, 섬을 멈추게 하는 발화와 행위의 의미는 물활론적 상상력을 통해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넘어 인간과 자연 간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는 서사적 전략임을 논했다. 이 전설에 담긴 정동의 감응을 포착해 가는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이 정서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서사적 원리를 생성해 갈 수 있으며, 현대 사회의 기후 위기, 생태적 위기 상황에서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의 상생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제안하였다.

주제어 이동하다 멈춘 섬, 정서적 변용(정동), 금기-누설, 호응-응답, 신유물론, 포스트 휴먼, 물활론적 상상력

1. 서론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수많은 자연에 미혹된 마음을 문학이라는 미적 양식으로 표현해 왔다. 자연이 주는 풍성한 감성을 인류 문명은 하나로 고정할 수 없기에, 상징과 은유로 표상하며, 더욱 풍부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인간이 느끼는 다채로운 감성과 정서로 자연을 표현하고 있지만, 자연의 물성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기에 문학적 형상화는 당대의 정서를 바탕으로 재현되기도 하고, 변용되기도 하며, 새롭게 창작되기도 한다. 그중 자연 전설은 고개, 돌, 바위, 연못, 산, 강, 굴(窟), 동식물 등의 생성 원리를 밝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에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투영하면서도 어긋나게 되는 오묘한 삶의 진실을 서사로 형상화해 온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전설은 자연물에 대한 인간의 허구적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지만, 이를 신유물론의 이론으로 설명해 보자면, 활력있는 자연의 강렬도에 감응하는 ‘정서 변환 양식으로서의 정동’을 미학적으로 배

열한) 서사라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전설은 이미 신유물론 이론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물활론적 사유로 산과 바위, 섬 등의 자연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왔다. 본 논의에서는 산, 섬, 바위 등의 이동을 통해 자연에 깃든 정동의 강렬함을 이야기 양식으로 배치한 것이 현재까지 전설로 전승되는 것으로 보고, 자연(물질)의 활력에 대한 향유자의 반응과 의미 배치에 따른 정서적 변용²⁾이 서사 변이의 주요한 축이 될 수 있음을 논해 보고자 한다.

한국 지형 형성 유래담 중에는 자연의 활력과 역동성을 그대로 펼쳐낸 많은 전설이 있는데, 본고는 ‘떠 들어오다가 멈춘 섬’에 향유층이 정서를 투사하며 이야기를 전승한 데 주목하고자 한다. ‘떠 들어오다 멈춘 섬’ 전설은, 섬이 스스로 움직이며 떠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발견한 여성에 의해 멈췄다는 ‘이동-발견-멈춤’의 순차구조로 정리할 수 있는 간명한 이야기로, 이동하는 섬을 발견하여 멈추게 한 여성에 대한 다양한 정서가 서사의 주요한 변이 요인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 유형분류』의 ‘521-2 떠오르다 부정한 일 일어나 멈춘 섬’에는 경상도에서 전승되는 10편의 설화 목록이 정리되어 있고, 『한국구전설화전집』에는 2편이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떠 들

1) 신승철, 『정동의 재발견』,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22, 124쪽.

2) 신유물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인간과 자연(물질)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의 활력을 공유할 때에 생기는 정동을 본 논의에서는 정서적 변용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신승철은 신유물론에서 ‘affect’는 정동으로 번역되어, 생명 에너지이자 활력, 힘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신승철, 위의 책, 5쪽.) 그러나 번역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포스트 휴먼』을 번역한 이경란은 ‘affect’를 문맥에 따라 ‘정서’ 혹은 ‘변용태’로, ‘affectivity’를 ‘정서’ 혹은 ‘정서적 변용’으로, ‘affective’는 ‘정서적’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했다. ‘affect’는 스피노자 철학에서 사용된 후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해 발전된 개념으로, 특히 이들은 ‘실천학의 동력으로서의 정서’에 주목한다. “정서는 실재적인 변화, 생성을 일으키는 에너지, 또는 생성 그 자체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osi Braidotti 저,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카넷, 2023, 73쪽.) 본 논의에서는 전승과정에서 ‘변이의 동력으로서의 정서’에 주목하고자, 위 책의 ‘정서적 변용’의 번역을 따라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어오다 멈춘 섬' 전설은 『한국구비문학대계』의 『한국설화유형분류집』의 '움직이고 멈추기'의 여러 하위 분류 중 동일한 구조를 보이는 '이동하다 멈춘 산' 유형의 설화와 함께 연구되어 왔다.³⁾ 『한국구비문학대계 유형분류』로 '521-1 이동하다 말 듣고 멈춘 산'에는 전국적으로 46여 편의 설화 목록이⁴⁾ 정리되어 있는데, 변이 유형까지 합치면 100여 편이 넘게 전승되고 있다. 반면에 '떠들어오다 멈춘 섬' 전설은 동일한 구조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10여 편이 전승되어, '걸어온 산'과 같은 의미를 생성한 것으로 연구되어 부각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산 이동' 전설의 선행연구에서는 산, 섬, 바위를 움직인 존재의 정체를 거인 여성으로, 움직임을 발견하고 멈추게 하는 '여성'의 존재에 대해, 마고 할미로 명명되는 거인 여성 신격이 변이된 것으로 논증해 왔다. 대모신격의 여성 거인이 산 이동을 멈추게 하는 존재(여성 등)로 변모되었다고 보고⁵⁾, 왜 말을 하면 멈추는 것인지에 대해 여성의 말과 행위에서 창조신격을 찾곤 했다.⁶⁾ 이러한 논의는 섬을 멈추는 여성의 변모 이전의 모습에

3) 최래옥, 「산이동설화의 연구」, 『판악어문연구』 3, 서울대국문학과, 1978, 487~540쪽; 한미옥, 「山 移動 설화의 전승의식 고찰」, 『남도민속연구』 8, 남도민속학회, 2002, 169~186쪽; 이영수, 「인천 지역의 산이동 설화 연구」, 『비교민속학』 35, 비교민속학회, 2008, 477~508쪽.

4) 섬 이동 설화보다는 산 이동 설화의 자료는 변이가 많다. 변이가 세부적인 유형으로 더 분류되어, 권태효는 『한구비문학대계』의 산 이동 설화를 117편으로 논한 바 있다. 산 이동 설화에는 이동한 산세 다툼이 첨가된 내용의 변이형이 있는데, 산이 멈춘 내력보다 아이의 지혜담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은 제외된 편수이다. (권태효, 「거인 설화적 관점에서 본 산이동 설화의 성격과 변이」, 『구비문학연구』 4,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218쪽.)

5) 천혜숙, 「여성신화연구(1)-대모신 상징과 그 변용」, 『민속연구』 1,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1991, 103~126쪽.

6) 권태효, 「거인설화적 관점에서 본 산이동 설화의 성격과 변이」, 『구비문학연구』 4,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220~221쪽.

이 논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부정적 인식의 측면 역시 거인여성의 신격 행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해, 창조신격을 가진 마고할미를 ‘가이아’와 같은 존재로 사유하게 하며, 고귀한 신성과 가치를 지닌 자연을 도구적으로만 바라본 인간의 태도를 성찰하는 여러 논의로⁷⁾ 이어졌다. 다른 한편으로 ‘섬을 멈춘 존재’가 부정적인 여성으로 변모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부장제 사회를 거치며 창조신격의 ‘여성’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음⁸⁾ 밝혀왔다. 원래는 대모신격을 가진 거인 여성인 마고할미 같은 존재가 지역마다 산, 섬, 바위, 돌, 고개, 성곽 등의 지형을 생성하는 신화였는데, 현재는 전설로 변이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성 거인의 신격이 약화되어, 가부장사회를 거치며 파편화되고 희화화되는 과정에서 떠 들어오는 섬을 발견하고 멈출 수 있는 존재가 일반 여성으로 변이된 후, 여성에 대한 부정적 정서의 흔적이 서사에 남은 것으로 선행 논의의 방향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산 이동 전설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할 때, ‘떠 들어온 섬’ 전설 역시 대지를 움직이고 소통하는 거인 여성이라는 대모신격이 섬의 움직임을 알아챈 여성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7) 이에 대해, 조현설은 ‘창조여신의 몸으로 상징되는 대지 혹은 지구의 몸살을 치유하라는 집합적 호소’로 논한 바 있다. (조현설, 『마고할미 신화 연구』, 민속원, 2013, 140쪽.) 허남춘은 이에 대해, ‘여성신화의 부활은 무한 경쟁으로 지구를 파멸시켰던 근대 문명을 반성하고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중시하는 정신을 회복하게 할 것’이라 한 바 있다. (허남춘, 「설문대할망의 창세신적 특성과 변모양상 - 주변민족 여성신화와 의 비교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8, 반교어문학회, 2014, 311~348쪽.) 김정은은 ‘마고할미 전설은 근대 이전의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았던 태고적 사유를 하게 하고 근대중심의 자연관을 의심하게 하며, 훼손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논한 바 있다. (김정은, 「화성지역 마고할미 설화의 유형과 전승 의미 -마고할미의 역동성과 우발성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24,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2022, 64쪽.)

8) 강진옥은 ‘고대국가 성립, 가부장제 아래 남성 세력 강화’로 마고할미의 창조신격이 부정적으로 변모되어 갔다고 했고, (강진옥, 「마고할미’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 민속학회, 1993, 40쪽.) 조현설은 마고할미가 바위 등의 자연물로 무언가를 만들다가 실패하는 존재로 변형된 형상을 가부장적 사유와 연결하여 설명하기도 했다. (조현설, 『마고할미 신화 연구』, 민속원, 2013, 24쪽.)

그러나 산 이동의 설화와 달리, 섬 이동 설화는 거인 여성의 신격이 전면
에 드러나지 않는다. 마고할미 등의 거인 여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섬이 스
스로 움직인다. 커다란 섬이 빙하처럼 떠다니는 것은 무척 경이로운 발
상이 아닐 수 없다. 창조여신에 의해 자연이 움직인다는 상상과 달리, ‘스스
로 떠다니다 멈추는 섬’이라는 화소는 태고적 애니미즘의 사유를 대변하며,
오늘날 생물이나 인간만이 의지대로 이동하고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대적 자연관을 넘어서, 대지를 생동하는 물질로 바라보게 한다. ‘떠 들어
오다 멈춘 섬’ 전설의 ‘이동-멈춤’의 자질은 인간이나 동식물만이 가진 것
이 아니라, 산, 섬, 바위, 돌, 고개 등의 모든 사물적 존재에게까지도 ‘힘’,
‘활력’, ‘생기’가 있음⁹⁾ 문학적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활력있는 섬의 ‘이동-멈춤’의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여성에 대
해 ‘가부장사회를 거치며 파편화되고 희화화되는 과정’으로만 설명하기에
는 다 해소되지 않는 다양한 정서가 각편에 드러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섬
의 ‘이동-멈춤’을 한 여성에 대해 ‘경이로움’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각편도
있는 반면에, 산이나 섬의 이동을 발견해서 멈추게 한 여성을 ‘부정한’, ‘팔
푼이’, ‘방정맞은’으로 표현하며 섬이 멈춰진 것을 책망하는 상반된 정서로
변용된 각편도 있다. 다양한 각편은 ‘섬의 이동 : 인간의 멈춤 행위’가 대립
지점을 형성하며 ‘자연의 움직임을 인간이 멈추는 것은 부정한 행위인 것
인가?’ 하는 서사적 화두를 생성한다. 본 논의에서는 부정적 정서가 서사화
된 이유를 가부장제 사회를 거치면서 거인 여성의 신성성이 탈각되었기
때문만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 대지’를 부정적 감정으로
대하는 태도와 대지를 생기와 영향력 있는 존재로 대하는 태도 사이의 배
치가 정서를 변용하고 있어, 이를 전설 변이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해 보고

9) 최근에 신유물론자들은 물질이 정서적이면서 동시에 자기생성적, 즉 자기조직적이라
는 새로운 ‘물질’ 개념에 기반을 둔 유물론에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osi
Braidotti 저,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카넷, 2023, 204쪽.)

자 한다. 신유물론의 이론을 빌려 설명해 보자면, ‘인간을 인간-아닌 자연(물질)에 연결¹⁰⁾하는 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변용이 어떻게 전설의 변이를 야기하고 의미를 다층화하는지, 그 서사적 원리를 밝히고자 하는 방향의 연구이다.

2. ‘떠 들어오다 멈춘 섬’ 전설의 전승 양상

‘떠 들어오다 멈춘 섬’ 전설은 『한국구비문학대계』(이후 『대계』)의 유형 분류에서 ‘521-2 떠오르다가 부정한 일 일어나 멈춘 섬’에 해당하는 설화로 10편이 목록화되어 있는데 대부분 거제도 근방에서 채록한 이야기이다. 『한국구전설화집』에는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는 4편의 설화가 있다고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지만,¹¹⁾ 본 논의에서는 구조가 비슷한 전라남도 <고드래섬>과 경상남도 <자루바가지섬> 2편의 설화만을 목록으로 넣었다. 권태효가 선행연구에서 넣었던 평양남도 <능라도>, 경기도 <광주바위섬>은 홍수로 떠내려온 섬이 스스로 멈춘 후 섬세(산세) 다툼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으로 ‘섬 이동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화소가 없어 제외하였다. 12편의 설화는 섬이 떠 들어오자, 이를 발견한 사람이 말이나 행위를 하면 움직이던 섬이 멈춘다는 서사적 요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전설의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다.

- ① 섬이 뚝뚝 떠 들어온다.
- ② 이 광경을 발견한 사람이 말이나 행위 등을 한다.
- ③ 섬이 그 자리에 멈춘다.

10) Rosi Braidotti 저,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카넷, 2023, 135쪽.

11) 권태효, 「거인설화적 관점에서 본 산이동 설화의 성격과 변이」, 『구비문학연구』 4,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218쪽.

이때 발화나 행위가 다양한 변이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전승자의 정서가 담긴 변이로 서사화되어 있어, 섬의 멈춤에 대한 정서가 드러나게 유형화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번호	수록책명	시작쪽	자료제목	발화자와 행위	정서
01	대계 8-2	37	범벽섬 전설	밥하던 아낙이 섬이 떠들어오자, 부작대기(부지깡이)를 가지고 정지문(부억문)을 세 번을 딱 두드리고 서서, 섬의 이름을 부르니 섬이 앉았다.	신이함, 경이로움
02	대계 8-1	456	떠 들어온 배암지섬	뱀처럼 떠들어오는 섬을 밥하던 여성이 작대기로 후려쳐서 멈췄는데, 그 섬은 깨끗해서 해수욕을 한다.	긍정, 놀라움, 신이함
03	대계 8-2	38	괭이섬	남성이 괭이섬이라고 이름을 지으니 섬이 앉았다.	신이함, 놀라움
04	대계 8-2	117	윤돌섬 떠 들어온 전설	여성이 “저 섬 떠 들온다.” 말하자 섬이 앉았다.	신이함, 놀라움, 호기심
05	대계 8-2	166	떠 들어온 박섬과 윤돌섬	윤도령이 마을 끝에 사는 과부에게 섬 들어 온다고 말하자, 두 섬이 들어와 과부랑 살라고 다리를 놓아준 것이다.	긍정, 공감
06	대계 8-2	17	고개섬	부인이 섬덩이가 내려온다고 했더니 거기에 섬이 앉았다.	신이함, 호기심, 놀라움
07	대계 8-1	318	매암섬과 동굴섬 떠 들어온 이야기	여자들이 섬이 떠온다고 하자, 섬이 멈추고 뒤에 따라오던 섬도 멈추었다. 동굴섬이 매암섬 앞에 앉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아쉬움, 불만, 책망
08	대계 8-2	363	산달섬 떠 들어온 이야기	할머니가 섬이 떠돌아다닌다고 하자 섬이 주저앉았다. 산달섬이 거체도에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수로가 좁아졌다.	아쉬움, 불편함, 책망
09	대계 8-1	525	방아고섬의 유래	과부의 무남독녀가 밤 태우고 뿔래와 갈레도 구별 못 하는 팔푼이라서 시집을 가지 못했다. 삼 년 동안 보고도 말하지 말아야 시집을 간다고 중이 말했는데, 섬이 떠오자 부지깡이로 부뚜막을 때리며, 엄마에게 섬 떠오는 걸 보자고 말하자 섬이 서버렸다.	부정적, 원망, 거부감, 불만, 불신
10	대계 8-2	254	조라섬의	방정맞게 여자가 섬이 떠 온다 말하자 떠 오	부정적,

			유래	다가 다시 나가서, 배를 댈 수 있는 좋은 도사가 되지 못했고, 파도가 세다.	불편함, 화, 아쉬움, 원망, 책망
11	한국구전설화집 9	19	고드래 섬	어떤 사람이 바위섬이 거문도에 붙지 못하게 떠밀어 두었더니 큰 바위로 또 눌러놓았더니, 고등어가 잡히지 않아 그 섬에 치성을 들었더니 고등어가 많이 잡혔다.	부정적, 불편함, 신이함, 신성, 기쁨
12	한국구전설화집 10	33	자루바가지 섬	자루바가지처럼 생긴 이 섬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여자가 자루백이 섬이 떠들어온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섬은 한 바퀴 빙 돌고 난 다음에 멈추었는데, 그 여자가 사는 양달마을은 쥐는 쪽이어서 가난한 마을이 되고, 반대쪽 응달마을은 자루담은 쪽이어서 부자 마을이 됐다. 응달마을의 선밤만 먹는 과부가 스님에게 말했다니 쥐는 쪽과 자루담은 쪽을 떨어뜨리면 된다고, 손잡이 목을 봤더니 과부는 피를 토하고 죽었다. 손잡이 쪽은 양쪽이 패어져 끊길 듯 되어있다.	부정적, 신이함, 부당함, 시기심, 뉘우침, 순응

섬을 멈춘 사람은 주로 여성이 많은데, 할머니, 부인, 딸 등으로 연령은 다양하다. 하지만 자료 3과 자료 5는 남성이 섬을 멈췄고, 자료 11은 성별이 드러나지 않았다.

‘멈춘 섬’이나 ‘섬을 멈추게 한 행위’에 대한 정서적 감정은 이야기에 사뭇 다르게 녹아 전승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름을 불러주어 섬이 멈췄다는 서사적 요지를 가진 자료 1, 3번은 구체적 행위와 발화의 경이로움이 잘 드러나게 구술된 자료이다. 거인여성과 이어지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남아 있는 두 자료도 보이는데, 먼저 자료 2의 <떠 들어온 배암지섬>에서 “밥하던 여자가 작대기로 가서 받아서 섬이 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자, 섬이 뱀 같이 떠 오다가 막대기로 후려치니까 못 들어왔다.”라는 대목¹²⁾

12) 거인 여성의 또 다른 명명인 ‘안가닥 할무이’ 설화에서 안가닥 할매가 성을 짓기 위해 바위를 회초리로 후려치는 행위와 이어지는 자료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이다. “신라성을 짤 때 안가닥 할매가 회초리로 바위를 후렸다. 한참 후처자 성을 다짤다.” (<안가닥 할무이>, 『한국구비문학대계』 7-1, 한국구정신문화연구원, 1994, 145쪽.)

또한 자료 11의 <고드래 섬>에서 어떤 사람이 섬을 밀어두는 행위 역시 거인 여성의 창조 행위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자료 4번-6번은 핵심구조를 중심으로 정서가 드러나지 않게 간략히 구술한 자료들이다. 자료 7-8번은 ‘멈춘 섬의 위치’에 대한 부정적 정서의 아쉬움을 서사화했다면, 자료 9-10번은 섬을 ‘멈추게 한 여성’에 대해 부정적 정서를 서사적으로 표출한 변이이다. 『한국구전설화집』의 자료 11번은 멈춘 섬으로 인해 고등어가 잡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섬에 치성을 드려 고등어가 잘 잡히도록 해결’한 단위담과 결합되어, 이동한 섬의 경외심이나 신성성을 느끼게 서사화하였다. 『한국구전설화집』의 12번 자료는 자루바가지처럼 생긴 섬이 떠 들어와서 못 살게 된 마을과 잘살게 된 마을이 생기게 되었고, 못 살게 된 마을의 과부가 ‘지세를 바꿔 발복을 하려다 실패’하는 단위담과 결합하여 전승되고 있다. 이렇듯 유사한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 들어오다 멈춘 섬’과 이를 ‘멈추게 한 행위’에 대해 상이한 정서가 각기 다른 변이를 생성하고, 그 결과 서사의 의미가 다층적으로 구성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떠 들어오는 섬’의 이동에 대한 정서적 변용: 활력의 경이로움과 불편함

전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 하기 힘든 기이한 내용을 사실 차원에서 전승하는 이야기’¹³⁾라는 정의에 기반해 생각해 볼 때, 이 전설에서 사실이라 하기 힘든 기이한 내용이자 기억에 각인되는 핵심화소는 ‘떠 들어오다 멈춘 섬’과 ‘섬을 멈춘 사람’이다. 떠 들어와 현재 존재하는 섬이

13) 신동훈, 「구전 이야기의 갈래와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비교민속학』 22, 비교민속학회, 2022, 365~402쪽.

‘증거물’로 사실에 대한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섬을 멈춘 사람’이 허구적으로 녹아들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서사적으로 사유하게 하는 전설이라 할 수 있다.

이 전설은 서론에서 말했듯이 거인 여성 신화에서 그 기원을 찾아왔다. 선행연구에서는 전승 과정에서 섬을 멈춘 빨래 혹은 밥을 하는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으로 ‘방정맞은 여인’이라고 전승자들은 첨언하지만, 섬을 멈춘 여성의 말 혹은 행위는 창조주의 창조행위가 완성되었음을 알려 섬을 멈추게 하는 전달자의 성격이 복합되어 있어, 거인 여성의 신격 행위와 이어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¹⁴⁾ 여성 인간으로 형상화되었지만, 자연을 움직이는 주체를 상징한 신화적 발상은 ‘멈춘 섬’과 ‘섬을 멈춘 사람’에 대해 ‘경이로움’의 정서를 전승한다. 이후 여성신격이 가부장제 집단을 감화하는 힘을 상실해 가는 과정에서 신성이 부정되고, 거인 여성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은 거인을 소거하고 ‘여성’만 남긴 것으로 추정해 왔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흥미로운 점은 신화에서 전설로 변이하는 과정에서 거인 여성의 모습이 소거되었을 때, 오히려 섬이 이동하고 멈추는 화소는 ‘대지가 생동하는 물질’¹⁵⁾임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인 여성에 의

14) 권태효는 ‘걸어온 산’ 전설을 마고할미로 대표되는 창조신격의 거인 여성 설화들이 변이된 형태임을 논증했다. 그는 섬을 멈추게 한 여성의 말이나 행위가 단순히 전승자들에 의해 ‘방정맞다’는 부정적 감정으로 수용된 것이 아니라, 창조행위의 완성을 알리는 신호이자 산을 멈추게 하는 전달자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권태효, 「거인설화적 관점에서 본 산이동 설화의 성격과 변이」, 『구비문학연구』 4,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215~249쪽.)

권태효는 여성거인설화의 변이방향을 창조신에서 회화화되면서, 숭배의 대상에서 징치의 대상이 되고,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선신에서 악신으로, 여성거인에서 남성거인으로 변모하며 비현실적 형상화에서 현실에 가까운 형상으로 변이되어 갔음을 논한 바 있다.

15) 이는 물질 자체에 활력이 있다고 보는 신유물론의 철학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생명 물질이 생명력 있고, 자기조직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Rosi Braidotti 저(2023),

해 움직여지는 수동적인 자연물이 아니라, 그 자체에 활력을 지닌 ‘섬’이 되어, 섬의 활력 자체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질이 생성된 것이다. 이런 활력은 인간만이 아니라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해 왔던 모든 만물까지도 자기를 지속하고 운동하며 생명을 존재하도록 하는 힘이 있는데¹⁶⁾, 이때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연의 활력을 마주했을 때의 불편한 정서가 ‘떠 들어오다 멈춘 섬’의 이야기에 전승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전설의 기원에 대한 발상을 바꾸어 신화적 상상력만이 아니라, 사실성에 기반을 둘 수 있는 ‘증거물’인 ‘떠내려온 섬’을 전설의 원천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물론 산천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땅 아래 맨들이 대류하며 지표층을 이동시키고 있고, 판구조론의 이론 등은 지진 등을 발생시키며 산천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혀왔기에, 그 경이로움의 원인을 신성이 아닌 자연현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다. 이 전설에서 섬이 떠내려오는 것은 ‘홍수’라는 경험적 현상과 연결될 수 있고, 과거에 벌어졌던 자연적 현상에 대한 사실적 경험과 그로 인한 충격의 정서를 허구화한 과정이 전설의 기원이 되는 것이다. ‘섬을 멈춘 사람’이 없는 이야기에서 특히 잘 드러나는데, 『한국구전설화집』의 <능라도>나 <경기도 광주 섬>처럼 ‘홍수’에 의해 떠내려왔다가 멈췄다는 말만 있는 전설들과 연결해 본다면, 섬이 떠내려오는 자연현상을 목격한 이야기가 경험담을 거쳐 전설로 넘어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섬이 떠다니다가 멈추는 일은 아주 태고적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최근인 2009년에도 방류로 인해 호수에서 섬이 떠내려가다가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러시아와 에스토니아가 국경을 맞댄 나르바호(湖)의 러시아에 있던 4ha(축구장 4개 정도 크기)의 섬이 호수 위에서 떠내려가 국경선을 가로질러 에스토니아로 넘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 섬이

앞의 책, 9쪽.)

16) 심귀연, 『이 책은 신유물론이다』, 날, 2004, 27~34쪽.

움직일 때 마치 빙하가 떠내려가는 것 같았다고 전해졌다. 더 흥미로운 것은 바람이 심하게 불자 섬이 러시아 쪽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¹⁷⁾ 이와 같은 일들이 기사가 아니라, 훗날 이야기의 형태를 빌려 구비전승된다면 어떨까? 러시아 입장과 에스토니아 입장에서 서로 다른 감정을 형성하며 전승할 수 있다. 이 신이한 자연현상은 인간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러시아로서는 아쉬운 일일 수도 있고, 에스토니아로서는 땅이 늘어나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감정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사유 과정으로 때론 섬의 이동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골칫거리가 생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섬은 인간의 입장을 고려하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섬의 물력으로 이동하고 있고, 활력 있다고 생각한 인간은 오히려 자연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료 7번의 동굴섬, 자료 8번의 산달섬 전설의 구연자들은 멈춘 위치에 대한 아쉬움을 전승한다. 자신의 지역이 도읍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큰 항구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섬이 원하는 자리에 앉지 않은 데서 비롯된 아쉬움을 덧붙이는 변이가 생성되었다. 없었던 것이 있는 것이 되었을 때, 관계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불편함의 정서가 전설의 변이에 서식하게 된 것이다.

17) 권복경, 「러시아 섬, 빙하처럼 움직여 국경 넘어」, 『조선일보』, 2009.06.25.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25/2009062500118.htm 접속 : 2024.07.21.

축구장 4개 크기, 에스토니아 영내로 “섬(島)에 발이 달렸나, 지느러미가 붙었나.” (중략) 러시아 일간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는 24일 “러시아가 4ha(4만㎡·축구장 4개 정도 크기)의 영토를 잃었다”고 보도했다.(중략) 과학자들은 지난 5월 말 러시아 이반고로드 인근 수력 발전소에서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한 것이 섬 이동의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방류가 호수 내 물의 흐름을 바꾸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고, 이 섬 조각이 약 2주간 에스토니아 쪽으로 이동하다 결국 19일 국경을 넘었다는 분석이다. (중략) 섬의 이동으로 러시아와 에스토니아 사이에 영유권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그런데 20일부터는 나르바호에 역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가 보도했다.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섬이 다시 러시아 쪽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떠 들어오다 멈춘 섬’의 화소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자연의 활력으로 마주하게 된 자연물에 대한 불편한 인간 정서를 담고 있고, 그 정서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섬을 ‘멈추게 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서사화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섬을 멈춘 여성을 닮하는 방법만으로 그 불편함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불만스러운 정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변이가 또 생성된다.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섬이 생겼는데, 인간이 바라는 형태로 자리 잡지 않아서 불만스러운 감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한국구전설화집』의 자료 11, 12번은 두 가지의 다른 서사적 갈림길을 보여준다. 자료 12번은 자루바가지의 쥐는 쪽의 형상과 자루에 담긴 쪽의 형상이 두 마을의 살림을 바꾸는 문제를 발생하게 하자, 가난해진 마을의 고부는 시기심과 부당함의 정서에 휩싸이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루를 쥐는 쪽과 자루 담긴 쪽의 가운데를 끊어서 지세를 바꾸려고 하자, 과부가 피를 토하고 죽게 된다. 자연이 가진 신이한 힘을 보여주면서, 자연의 물성을 인간의 의지로 바꾸고자 하는 욕망을 경계하는 서사적 변이가 생성되었다. 그렇다면 인간은 주어진 자연에 예속되어 순응하며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자료 11번은 자연과 인간이 한쪽에 예속되는 것이 아닌, 공생하는 길을 보여준다. 멈춘 섬으로 인해 수로가 좁아져서 고등어가 잡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섬으로 인해 불안함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치성’을 들였더니, 고등어가 다시 많이 잡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덧붙여졌다. ‘치성’이라는 합심의 과정으로 불안을 해결하고, 섬의 존재를 인정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자연의 활력에 대한 불안함과 불편함을 해결하는 길은 자연의 활력을 인정하고 공존하려는 태도이다. 이렇게 서로를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때, 인간과 자연의 ‘생기적 유대’¹⁸⁾가 생성될 수 있음

18) Rosi Braidotti 저(2023), 앞의 책, 105쪽.

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거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섬 스스로의 활력으로 '이동-멈춤'의 행위를 수행하는 화소의 변이를 통해, 자연과 문화,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인간 중심으로 수렴하지 않을 수 있는 감수성이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4. 섬을 멈춘 행위의 두 간극: 누설과 호응 사이의 정서

이 전설의 '이동하는 섬'만큼 중요한 또 다른 화소가 '섬을 멈춘 사람'이다.¹⁹⁾ 거인 여성인 마고할미는 산천이자 자연 자체, 지구 자체이다. 가이아 여신이 지구 그 자체이듯이, 전 세계 많은 신화에서 인간의 인지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산천의 변화, 물성, 활력, 에너지, 힘 등을 마치 거인의 움직임처럼 의인화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전승과정에서 거인 여성의 형상은 소거되면서, 자연이 움직이는 속성만 남아, 섬이 스스로 이동하는 것으로 변이되고, 자연을 변화시키고 창조하던 거인 여성의 힘은 '섬을 멈추는 사람'으로 흔적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부장제를 거처며 산과 섬을 멈춘 여성을 비하하거나 원망하는 것으로 변이되어 간 것으로 설명되었다.

주목해 볼 지점은 '섬을 멈춘 여성'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변용되는 과정은 마고할미와 같은 창조성을 담지한 존재에서 '인간을 표상하는 존재'로

19) 섬의 이동과 다르게 산의 이동은 마고할미가 산을 직접 움직이는 각편이 많이 전승된다. 울산바위 등처럼 스스로 걸어가다 쉬어가려고 멈춘 전설들을 가장 초기 형태로 보고 있고, 화성 쌍봉산처럼 마고할미로 대표되는 거인 여성이 산(혹은 쌀)을 메고 오다가 쉬었더니 산이 된 것은 거인 여성에 의해 옮겨지는 것으로 후대에 변이되었다고 추정한다. 걸어다니는 산이나, 움직임을 발견한 여성에 의해 멈추는 자료는 많다. 거인여성의 형상과 산의 움직임이 잘 드러나는 것은 마고할미가 산을 메고 다니다가 쉬었다는 화성의 쌍봉산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쌍부산, 쌍봉산 이야기>, 『한국국비문학대계』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355~357쪽.)

변이되면서, 섬의 이동 역시 여성 거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섬의 활력으로 스스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거인 여성에 의해 움직일 때보다 오히려 초창기의 울산바위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물성은 더 강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또한 거인성이 소거된 ‘섬을 멈춘 사람’은 마고할미가 내재한 창조성의 표상만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변화하고 지배하는 힘을 내재한 인간의 속성을 가지게 되어, 초창기에 자연의 움직임 그 자체인 마고할미의 속성과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자연의 변화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인간의 힘이 섬을 멈추는 여인으로 표상되어, 결국 ‘섬의 이동 : 인간의 멈춤 행위’로 대립 자질이 생성된 것이다.

여기서 멈춘 섬은 서로 다른 방향의 정동을 일으켜, 멈춘 섬이 인간을 중심으로 했을 때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로 상반된 정서를 표출하게 된다. 여성이 작대기로 때려서 멈춘 결과 배암지섬(자료 2)은 깨끗해서 해수욕장이 되었고, 섬 들어온다는 말에 멈춘 윤돌섬(자료 5)은 섬과 섬을 잇는 다리처럼 되어 과부와 윤도령을 만날 수 있게 해 줬기 때문이다. 이 섬들은 인간 문명의 기준에서 유용함을 보여주는 서사 방향으로 이어져 긍정적 정서를 표출한다. 반면에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자연의 흐름에 인간이 개입하였다고 보고, ‘방정맞은’ 등의 감정으로 질책 혹은 책망하는 변이가 생겼다. 이는 마고할미가 지닌 속성인 자연 자체로 보기보다는 인간 행위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섬을 멈춘 여성을 비하하고, 멈춰진 섬까지 부정적인 정서를 투영하며 말하는 각편이 왜 더 많이 생성되어 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떠들어 오다 부정한 일 생겨 멈춘 섬’이라는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유형분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섬을 멈추는 행위는 부정한 일이라는 정서가 새겨지는 각편들이 우세하다.²⁰⁾ 그 부정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자세하게

20) ‘걸어오다 멈춘 산’ 전설에서는 자연물을 멈춘 여성의 행위가 더 부정적으로 표출된 변이가 더 많다.

다른 자료 9번의 <방아고섬의 유래>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청상과부와 외동딸이 살았다.
- ② 딸이 말괄량이라서 밥 태우기 일쫓고, 빨래와 걸레도 구별 못하고 빨아 신랑 감을 찾기가 어렵다.
- ③ 시주를 받은 중이 근심이 있나는 말에 “딸이 시집 못가서 걱정을 한다”했더니, “삼 년동안 좋은 게 있어도 보지 말고, 아무리 급한 게 있어도 보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게 있어도 보지 말라”고 조언해 주었다.
- ④ 딸이 부엌에서 불을 넣고 있다 보니까, 섬이 하나 둥둥 떠가고 있었다.
- ⑤ 부지깥이를 들고 부뚜막을 때리면서, “엄마야 저기 섬이 떠간다, 떠가는 거 보자”했다.
- ⑥ 섬이 그 자리에 멈췄다.

③단락에서 “보지 말라”라는 금기가 주어진다. 그런데 그 금기를 깨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고 그에 대해 말하기까지 한다. 부지깥이를 두드리며 말하는 여성의 행위는 마고할미 등의 창조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화소지만, 이 처녀는 당대의 기준에서 여성다움을 찾을 수 없는 말괄량이 여인이라서 섬을 멈춘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자료 10번의 <조라섬>은 떠 들어오려던 섬이 여성의 발화에 의해 다시 나가버린 것을 닮는다.

아, 그 이약(이야기) 그거 뿐입니다. 끝이 그마(그만) 다시? 내나 섬이 둥둥 떠 온께(떠 오니까) 방정시리(방정맞게) 여자가,

“아이구! 저 섬 떠 들온다.”

한께 들오다(들어오다가) 다부(도로) 나가더랍니다. 암 말도 안 했으므로, 여(여기) 안에 들왔으므로 여가(여기 가)참 석시(배를 대는 곳.) 좋고 아주 도시(都市)될 뻔 당했는데, 저 섬이 똑 떨어져 나간 때민(때문)에 파도가 세고요.

그렇다요, 파도가 아주 세고 [조사자:저기 무슨 섬입니까?] 조래섬. [조사자:조
라섬?] [청중:조라섬.] [조사자:조라섬.]²¹⁾

‘방정맞은’ 여성의 발화로 인해 섬이 들어와 앉으려다 도로 나가버려서 파도도 세고, 배도 대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는 섬의 이동을 멈추지 않게 하는 서사적 원리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마이산²²⁾ 등의 ‘걸어오다 멈춘 산’ 전설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바로 ‘사람에게 들키지 말아야 한다’는 ‘금기’의 서사문법이 이 전설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여성의 입방정으로 산이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이곳에 머물렀다는 전승들로 보았을 때, 섬 이동 전설 역시 ‘보이지 않은 금기’의 맥락이 서사에 전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섬의 이동을 ‘알아차리면 안된다’ 혹은 ‘말하면 안된다’는 암묵적인 금기인데, 방정맞은 여자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금기를 깬 것이고, 이로 인해 섬을 멈추게 한 여성의 ‘금기-누설’에 대해, 책망의 정서가 덧붙여지는 것이다.

21) <조라섬의 유래>, 『한국구비문학대계』 8-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255쪽.

22) · 걸어오다가 멈춘 마이산(대계 5-2, 81쪽), 크는 마이산과 방해진 여자(대계 5-2, 47쪽)

- ① 암 마이산, 수 마이산이 걸어오고 있었다.(뽕죽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 ② 새벽에 물 길러 가는 여인이 산을 보고, “아, 저 산이 막 걸어오네!” 방정맞게 말한다.
- ③ 산이 깜짝 놀라서 주저앉아 암마이산, 수마이산이 되었다.
- ④ 여자가 안 봤으면 사정없이 졌을 것이다.

· 자라다 멈춘 마이산(대계 5-2, 83쪽.)

- ① 암속금산이 무서우니 낮에 가자고 하고, 수속금산이 밤에 가자고 말하다 암 속금산의 말대로 낮에 올라가게 된다.
- ② 물둥이를 지니는 여자가 “저산이 왜 이저렇게 커 올라 간대냐!” 말한다.
- ③ 수속금산이 낮에 올라가자고 해서 들켰다며 암속금산을 발로 차 버렸다.
- ④ 제대로 올라갔으면 서울이 될 것인데, 방정맞은 여자 때문에 못 커 올랐다.

이런 정서가 생성된 이유에 대해 ‘거인여성’의 창조적 행위로 보았던 선행연구가 아니라, 최근에 주목되지 않았던 초기 선행연구에서 다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정인진은 남해에 떠 들어오다 멈춘 섬으로 ‘목섬’에 대한 설화 30여 편을 조사하였는데, ‘여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소녀가 이동 방해에 나타나는 것은 신들을 모방할 때 선택된 소녀의 소리침이 금기의 제시와 파괴라는 태초의 사건에 대한 인식 결여²³⁾라고 논한 바 있다. 이는 섬의 이동이 소녀의 소리침에 의해 멈췄기에 이를 부정적인 행위로 본다는 관점이다. 간명한 구조로 서사 전면에 ‘금기’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섬이 이동하다 멈춘 원인에 대해, 걸어오다 멈춘 마이산 등의 동일한 유형에서 이동을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금기’ 화소가 있었던 것처럼, 목섬 전설에서도 금기가 내재했다고 보는 것이다. 섬의 움직임은 인간이 알아차리지 못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알아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기이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밥하거나, 빨래하거나, 오줌을 누러 나온 여성들이 자연의 금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누설했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이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런 인식은 발견한 사람을 할머니에서 점점 어린 여성으로 변하게 하고, 자연의 흐름을 깨는 존재로 변이하는 서사를 생성하여, 자료 9번과 10번의 각편처럼 ‘방정맞은 여성’이라는 정서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연의 흐름을 인간의 사유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경계의 정서이다. 마찬가지로 자료 12번 <자루바가지 섬>의 덧붙여진 단위담 역시 인간이 자연에 인간의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서사화한 것이다.

이런 각편을 본다면, ‘섬을 멈춘 여성’은 어느새 자연신인 마고할미 속성과는 반대로 인간 문명의 속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움직이는 섬 : 멈춘 인간’은 ‘자연 : 문명’의 대립 자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섬을 멈춘 존재는

23) 정인진, 「<목섬> 설화의 전승 양상과 전승 의미」, 『청람어문학』 9, 청람어문학회, 1993, 141~165쪽.

섬이나 산이 스스로 움직이는 광경이 너무나 낯설고 신이(神異)하기에 놀람의 외침이 터져 나올 정도로 자연의 물성을 합리적으로 인지하기 힘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자연의 물활론적 속성을 인간의 합리성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패러다임을 맞이했기에 섬과 산은 그 놀란 외침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멈추게 되었고, 이후에도 멈춘 섬은 애니메이션 시대의 종식으로 인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는 인류사를 전설 한 편으로 압축해 담아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 전설 중에는 여전히 자연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이어가고 있는 각편들이 있다. 인간의 몸짓처럼 이동하다 멈추는 신이한 섬의 에너지와 활력이 화소로 강렬하고 인상 깊게 기억되기 때문이다. 섬의 활력을 보여주는 이야기의 이미지를 통해, 전승자들은 자연에 담긴 일종의 애니메이션 혹은 정동을 여전히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떠들어오다 멈춘 섬’과 ‘섬을 멈춘 사람’은 대립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문명)과 자연이 연결될 수 있는 서사적 길을 보여준다. 그 거대한 섬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여성의 말과 땅을 두드리는 행위에 여전히 있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료 1의 <범벽섬의 유래>는 섬의 이름을 지어 부르자 섬이 그 동네에 주저앉게 된다는 내용의 각편이다. 섬은 자신의 물성으로 활력을 가지고 떠내려가고 있는데, 여인이 이를 알아차리고 섬의 이름을 지어 부르며 땅을 두드리자 섬은 멈춘다. 여인이 움직이는 섬의 정동에 호응하고, 호명하자 섬은 응답하듯 멈추는 것이다.²⁴⁾

어밌이(아낙네) 첫 아아(아이) 하나 놓고(낳고) 아적(아침) 밥을 끓이(끓여) 놓고 떡 나서 본께네 큰 섬이 하나 둥둥 떠 들어오더랍니다. 떠들어서 그 여자가 부작대기(부지깅이)로 가이고 저거 정지문(부엌문)을 세번을 딱 두드리 놓고

24) 바라드는 응답한다는 것은 윤리적 문제인데, 응답한다는 것은 타자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심귀연, 『이 책은 신유물론이다』, 날, 2004, 159쪽.)

서서로 이름을 짓기로, 그 섬을,

“범벅섬아, 범벅섬아, 딴 데 가지 마고 게 앉아라. 그 동네 앞에 앉아라.”

캐논께(고 하여 놓으니까), 동네를 딱 안고 앉아 있습니다. 그 섬이 그래 이름을 짓기로 범벅섬. 그 여자가 지었어요.²⁵⁾

떠 들어오는 섬에 이름을 지어주자 섬이 가던 길을 멈추는 데, 이는 여인이 움직이는 섬을 인지하고 감응했기 때문이다. 앞서 어린 여성의 누설로 바라본 관점과 다르게 이 각편에서는 여성이 자연의 이치 혹은 비밀을 더 많이 담지한 존재처럼 느껴진다. 여인 역시 섬의 물성에 응답하고 있는 존재이다. 주로 새벽에 밥을 하러 일어나는 여인,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 임신한 여인, 심지어 오줌을 누고 있는 등의 일상적인 여성의 활동을 하는 여인의 눈에 주로 섬이 떠 들어오지만, 자료 3의 <팽이섬>은 유일하게 남성이 섬을 멈추게 하고 있는 자료인데, 이 남성 역시 섬에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 멈추라고 한다.

섬은 또고(또) 남자가 그런게, 여자 아이고, 남자. 그 섬이 팽이섬이거든. 이름을 짓기로 동동 떠서 또 섬으로 들온게 그 남자가 논두렁에 섰다가 섬에 앉을 데가 없는데, 우리 팽이섬아, 우리 보고 양바지 앉으라. 이름 지음서로(지으면서) 팽이라 캬거든요. 팽이섬을 갖다 게 앉으라 큰께나, 우리 참, 동네에서 시방 저 양산(案山)같이 앉으라꼬 우리 팽이섬아, 큰께나 아 그 앉았어. 앉아. 그래 이름을 지음서로 팽이, 팽이섬이라.²⁶⁾

섬의 잠재적 존재성을 표현한 말이 힘을 가지게 되어 섬을 멈추게 하고, 그런 발화를 한 사람의 모습은 누설이 아닌 ‘호명과 응답’의 주체가 된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 대해 응답하는 모습이다. 인간과 자연은 지구를 구

25) <범벅섬 전설>, 『한국구비문학대계』 8-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37쪽.

26) <팽이섬>, 『한국구비문학대계』 8-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38쪽.

성하는 동등한 물질이다. 그리고 그 물질이 내재한 물성과 활력에 대해 우리는 경이로움의 정서를 느낄 때가 많다. 물성에 감응한 그 정서는 ‘신성’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 다가온 섬의 물성 혹은 신성에 감응하고 호응했을 때, 섬이 멈추는 것으로 응한다는 자연과 인간의 상생적 관계맺기의 모습이 전설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호응하고 응답하며 자리를 못 찾는 자연의 자리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찾아간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 각편들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감응으로 자연과 인간의 배치를 바꿀 수 있음을 물활론적 상상력을 통해 보여준다.

이와 연장선에서 볼 때, 행위와 결과만 있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자료 4의 <윤돌섬 떠 들어온 전설>에서 ‘한 여성이 “저 섬 떠 들온다.” 말하자 섬이 앉았다’와 자료 6의 <고개섬>에서 ‘한 부인이 섬덩이가 내려온다고 했더니 거기에 섬이 앉았다’라는 전설들 역시, 물질과 문화, 자연과 인간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구성하며 확장해 가는 관계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또한 후대에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다는 기준으로 앞서 여성의 말하기를 부정적으로 변용한 전설도 있지만, 그 부정적 여성의 말하기 역시 ‘움직이는 섬의 정동에 여성이 호응했고, 그 말하기의 호명에 섬이 응답하여 멈춘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요컨대 ‘떠 들어오다 멈춘 섬’ 유형의 열두 편 전설은 이동하는 섬을 통한 물활론적 경험을 강렬하게 마주하고 하고, 섬을 멈추는 사람의 행위를 서사화했지만, 그 행위의 의미를 배치해 가는 방향에 따라 정서는 상반되게 변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금기-누설’의 말하기로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향은 인간과 자연의 대립적인 속성을 생성하며, 인간에 의해 멈춰진 자연의 물성을 돌아보게 하는 정서를 다시 배치한다. 물성이 가진 정동에 서로 ‘호응-응답’의 말하기로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향은 기후 위기 등으로 인간에 의해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 자연의 몸살에 어떻게 호응하고 호명하며 서로의 존재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가의 다채로운

대답을 탐색하게 한다.

5. 결론

오늘날 생태 위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논할 때, ‘가이아’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고할미가 사라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우리의 산천이 마고할미 자체이다. 산천이 가진 물성을 신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야기가 인간을 인간-아닌 자연(물질)에 연결하게 하는 방식이다. 마고할미가 만든 산천의 물성을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연을 대상화하고 도구화하여, 모든 자연의 물성이 인간에게 이롭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 그렇기에 자연은 자신의 물성을 인간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시기에 신유물론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연과 문화는 대립된 것이 아니며 모든 물질은 자기를 조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으로, 이는 인간의 생명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구의 존재를 평등하고 소중한 것으로 보는 새로운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 중심주의적 세계관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음을 말해주며, 인간 개념에 의해 타자화되고 주변화된 존재들을 복권하고, 인간과 다른 물질 사이의 관계를 위계적으로 보는 관점을 바꾸는 정서적 변용에 주목한다. 주어진 것과 구성된 것 사이의 이분법적 대립에 의존하던 근대적 자연관이 아니라, 자연-문화, 인간-자연의 연속체로 바라보며, 기후 위기 등의 움직임에 호응하고 응답해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본 논의는 ‘떠 들어오다 멈춘 섬’ 전설은 지형유래담이자, 인간과 자연, 물질과 문화 간의 관계를 다시 사유하게 하는 서사적 힘에 주목하고자 했다. 섬의 ‘이동-멈춤’의 화소는 자연의 활력과 물성을 느끼게 하고, ‘섬을

멈춘 사람(여성)의 발화와 행위는 ‘금기-누설’과 자연의 정동에 대한 ‘호명-응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떠 들어오다 멈춘 섬’은 현대인에게 기후 위기 등으로 나타나는 자연의 몸살을 인간이 호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해준다.

‘떠 들어오다 멈춘 섬’ 전설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생명체들 사이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생명체와 비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방식을 보여주며, ‘인간-아닌 대지’의 방식에 호응하고 응답하는 상생적 관계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한다. 현대에 지구가 처한 위기, 마고할미가 사라지는 위기 속에서 멈춘 섬의 물성을 인간의 잣대로 사라지게 하는 행위를 넘어서기 위해, 자연과 인간의 “상호소통”의 역동성을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를 끊임 없이 탐색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전설이 가진 정동의 힘일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9, 평민사, 1992, 1~330쪽.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10, 평민사, 1993, 1~366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5, 1982, 1~598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5-2, 1981, 1~884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7-1, 1994, 1~644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8-1, 1980, 1~1078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8-2, 1980, 1~1278쪽.

2. 국내논저

- 강진옥,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 민속학회, 1993, 3~47쪽.
권태효, 「거인설화적 관점에서 본 산이동 설화의 성격과 변이」, 『구비문학연구』 4,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215~249쪽.
김정은, 「화성지역 마고할미 설화의 유형과 전승 의미 -마고할미의 역동성과 우발성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24,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2022, 39~73쪽.
신동훈, 「구전 이야기가 갈래와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비교민속학』 22, 비교민속학회, 2022, 365~402쪽.
신승철, 『정동의 재발견』,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22, 1~480쪽.
심귀연, 『이 책은 신유물론이다』, 날, 2004, 1~182쪽.
이영수, 「인천 지역의 산이동 설화 연구」, 『비교민속학』 35, 비교민속학회, 2008, 477~508쪽.
정인진, 「<목섬> 설화의 전승 양상과 전승 의미」, 『청람어문학』 9, 청람어문학회, 1993, 141~165쪽.
조현철, 『마고할미 신화 연구』, 민속원, 2013, 1~294쪽.
천혜숙, 「여성신화연구(1)-대모신 상징과 그 변용」, 『민속연구』 1,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1991, 103~126쪽.
최래옥, 「산이동설화의 연구」, 『관악어문연구』 3, 서울대국문학과, 1978, 487~540쪽.
한미옥, 「山 移動 설화의 전승의식 고찰」, 『남도민속연구』 8, 남도민속학회,

2002, 169~186쪽.

허남춘, 「설문대할망의 창세신적 특성과 변모양상 - 주변민족 여성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8, 반교어문학회, 2014, 311~348쪽.

3. 국외논저

Rosi Braidotti 저,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카넷, 2023, 1~296쪽.

4. 인터넷 참고자료

권복경, 「러시아 섬, 빙하처럼 움직여 국경 넘어」, 『조선일보』, 2009.06.25.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25/2009062500118.htm

접속 : 2024.07.21.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and Variation of Affect
in Transmission Reflected in the ‘Movement-Stoppage’
of the Legend of the ‘Island That Moved and Stopped’

Kim, Jung-eun

A Study analyzes affective transformations present within the sequential structure of ‘moving-stopping’ in the Korean geomorphological origin legend of the ‘Island That Floated In and Stopped,’ employing a new materialist perspective. Twelve transmitted legends exhibit contrasting affects: some versions express awe and wonder towards the vitality and dynamism of nature, whereas others reflect negative affects regarding women’s actions that halt the islands or the islands’ eventual locations. Previous studies predominantly interpret these negative affects as outcomes of patriarchal transformations negatively impacting female deities. This research further highlights the affective transformations and narrative complexities arising from human recognition and responses to natural vitality.

Drawing on new materialism, the study identifies affective transformations as affects emerging from interconnected vitality shared by humans and nature (matter). When islands’ movements are controlled by human intention, negative affects emerge through the narrative logic of ‘taboo-disclosure.’ Conversely, positive affects develop through ‘response-interaction,’ which emphasizes respect, naming, and mutual responsiveness with nature. This narrative approach is argued to represent an animistic imagination, exploring coexistence possibilities beyond anthropocentric worldviews. Ultimately, the legend offers narrative principles supporting affective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nature, advocating the overcoming of anthropocentrism and the establishment of symbiotic human-nature relationships in response to

contemporary ecological crises.

Key Words Island That Moved and Stopped, Affective Transformation(Affect),
Taboo-Disclosure, Response-Interaction, New Materialism, Posthuman,
Animistic Imagination

논문투고일: 2025.4.14.

심사완료일: 2025.5.9.

게재확정일: 2025.5.19.